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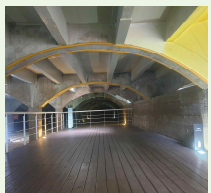
시멘트커넥트 투어 장소



삼표레미콘공장부지: 삼표레미콘공장과 부지의 역사 1974년에 설립된 삼표레미콘 공장은 서울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성장, 이곳은 서울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63빌딩과 청계천복원사업, 김포공항활주로, 롯데월드 타워 건설에 사용된 레미콘을 공급하며, 도시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함
그러나 이 공장은 수십년 동안 소음, 먼지, 교통체증, 교통사고 우려 등 문제들과 성수동 지역의 변화와 개발로 인해 공장을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이어졌고, 2022년 8월 16일에 철거가 완료되며, 1974년부터 무려 45년 동안 활동해온 공장의 시대가 마감됨
현재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는 성수문화예술마당으로,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리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음
2025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 업무, 상업, 문화, 숙박, 주거등을 포함하는 다기능 복합용도의 건물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 건물들은 최고 높이 56층 내외의 초고층 건축물로 설계되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함, 또한 서울숲과 한강 변 주요 거점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며, 문화 교류의 장, 혁신적인 비즈니스 허브, 최첨단 주거공간으로 이용 될 예정임



수도박물관 제1정수장 서울에 최초로 설치된 수원시설로 1903년 미국인 콜브란과 보스트 워크는 대한제국정부로부터 상수도시설에 대한 특허를 받음. 이들은 정수장의 송수실과 완속여과지를 1906년 8월에 착공하여 1908년 8월에 준공함, 여기에 사용된 기자재와 시설 일체는 영국과 미국 제품이었음 준공 당시 1일 정수량은 12,500m³로 약 165,000명에게 급수되었으며, 그 당시 서울시 급수의 32%를 담당하였다고 함



완속여과지는 모래층과 자갈층에 한강물을 통과시켜, 불순물을 걸러내던 친환경적인 방식의 정수시설임

독도수원지 제1정수장 완속여과지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1908년 8월부터 1990년 8월 까지 82년 운영되었음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어 보존함



성수구름다리전망대는 탁트한 한강을 보며, 서울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은 롯데타워와 남산타워를 동시에 볼 수 있고, 성수대교의 멋진 전망을 제공함 낮이건 밤이건, 이 다리 위에서는 서울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일몰 시간에 방문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을 보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음



연무장길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군인들이 모여 무예를 연습하는 장소라는 뜻 수제화 관련 부자재 거리에서 현재는 다양한 팝업스토어, 카페거리, 먹거리를 경험하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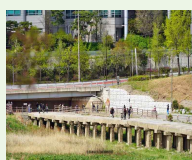


구두테마공원은 1998년 성수근린공원으로 조성된 이래 18년 동안 인근 주민들의 앞마당으로 이용되어 온 곳으로 공원면적은 5,197㎡(약 1,572평) 201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한 주민이 제안, 성수근린공원, 구두테마공원으로 재탄생, 구두조형물, 장인벤치, 원형광장, 야외무대 등 설치,역주민과 인근 직장인들에게 커뮤니티공간으로 운영 되고 있음

그 외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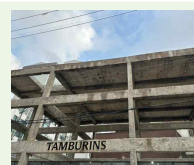
한양대학교박물관
<시멘트:모멘트>
전시 중



살곶이다리



청계천박물관



성수동
탬버린즈



한양대 시계탑_김재경 교수 디자인